



| 정 현 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아내와 어머니, 남편과 아버지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언제 정말 결혼 잘 했다, 혹은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물으면 아이들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때, 혹은 능름하게 잘 큰 것을 볼 때 등을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다. 결혼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핵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나라 부부들에게 결혼생활에서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지나쳐 부부관계보다도 부모-자녀관계를 더 중히 여기는 많은 부부들을 만나게 된다. 고3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고3이 되면 부부간 성관계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으며, 식사식단도 자녀들의 입맛에만 맞게 준비한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아이 아침밥은 차려줘도 남편의 아침밥은 안 차려줘서 자신이 부인에게 왕따 당했다고 푸념한다. 아이의 요구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 남편이 부인 말이라면 들은 척도 안한다고 푸념하는 부인들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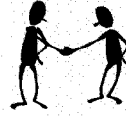
주 만난다. 이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좋은 가족을 이루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그러나 이런 집 아이치고 나중에 성공했다거나, 부모님 은혜에 감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거의 없다. 혹은 이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본적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가족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만을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없으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용기도 없다. 그래서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도 과외를 받아야만 학업을 겨우 따라가는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성적이 생각보다 안나왔다고 아이가 풀이 죽어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교수에게 전화하는 부모들도 있다.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이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이고 부부관계에서의 서로의 역할에 대

바람직한 부모(아버지·어머니)의 역할

남편과 아내는 부모역할을 하는데 있어 파트너이다.



바람직한 부모역할은 바람직한 부부관계에서 나온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녀의 궁극적인 행복과 복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부모역할은 매우 힘이 드는 것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돌보도록 위임된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한 인정과 상호존중이 기반이 될 때 부모-자녀관계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가족을 이룬다. 다시 부부만 남았을 때 갑자기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돌아보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이다.

이 때는 서로의 삶과 인생이 기차길처럼 나란한 것이 아니고 부채꼴 길의 양끝에 서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늙어서 등 굽어주고 아침에 잠 안 올 때 이런저런 이야기 두런두런 나눌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이다.

신기하게도 좋은 부부관계를 맺는 부부들은

항상 좋은 부모이다. 이들의 자녀들도 항상 건강하게 자란다. 이제는 좋은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가 되는 핵심임을 깨닫고 인생의 동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의 내용을 통해 좋은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다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난다. 정말 아이들은 스폰지에 잉크가 스며들 듯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간다. **PPFK**